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본격 추진

서울대 학술림 무상양도 변수 작용할 듯 공단, 이달내 타당성조사 용역 업체 선정

광양 백운산(해발 1218m)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백운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업체를 이달 안에 선정키로 했다. 공단은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대상 면적은 104.7km로

이 가운데 광양시 관할이 전체의 69%인 72.3km로 가장 넓고, 구례군(28.3km), 순천시(4.1km) 지역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무상양도를 추진해온 학술림이다. 남부학술림 가운데 백운산 내 일대가 모두 국립공원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의 배경은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학

술림의 무상양도와 관련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악·연건·수원 캠퍼스와 수목원·약초원 등의 국유재산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광양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기획재정부는 백운산의 서울대 남부 학술림에 대한 무상양도를 잠정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국유재산 심의 TF팀을 구성,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광양시는 지난 4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정 건의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은 법인으로 새로 출범한 서울대가 백운산 남부학

술림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데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소유권을 갖는 대신 무상으로 임대해 학술림을 계속 활용하도록 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립공원의 특성상 연구활동에 큰 제약은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내에서도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을 둘러싸고 국립공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 등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우산 웰빙 테마공원 개장 이상용 광양시장과 관계자들이 10일 우산 웰빙 테마공원 개장식을 가진 후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광양시는 오는 2014년 5월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1, 2단계로 나눠 생태통로와 전망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시 제공>

농어촌공 장마철 24시간 재해대책 상황실 가동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공사는 지난 5~6월 중부지방에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짐에 따라 공사 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전남지역본부도 앞으로 장마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우수 확보에 중점을 두던 가뭄대책 상황실을 풍수해를 대비한 재해대책 상황실 체제로 긴급 전환하고 집중호우에 인한 피해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재해대책 상황실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와 연계돼 저수지·양배수장 등 전국의 농업기반 시설과 농업분야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의 재해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공사는 앞으로 농업분야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 실시간 안전점검을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김형운 전남지역 본부장은 “앞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공사현장 관리와 배수장 정비 점검 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 임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전부터 출판이라니...

지난 6~7일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도립공원 내에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남지회 회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 대회’가 열렸다. 전남 임업발전의 취지에서 열린 대회 개최식 전부터 일부 회원들이 출판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최형수씨 제공>

함평 해보파출소 민·경 합동 음주단속 실시

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는 해보면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최근 차량 통행이 잦은 문장사거리 일대에서 민·경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음주단속은 농번기를 맞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과 음주운전 분위기 조성 등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보파출소는 앞으로 음주운전 가

능시간과 교통사고 위험 장소에서 계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하고, 음주단속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통사고 등 예방 활동을 강력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오 소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행위”라면서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능기계 및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새 얼굴

“의원들간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 도출”

김 대 희 순천시의회 의장



“모든 의원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민주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순천시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대희(57·풍덕·남제·장천동) 의원은 “의원들간 갈등을 조래하는 표결은 가급적 지양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현안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장은

로 당선시켜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고마움을 깊이 간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4선인 김 신임 의장은 조선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후반기 부의장과 국제 와이즈먼 순천 이수를 잘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오영숙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목포시의회 인쇄물 발주 특혜 의혹

1억1800만원 중 9200만원 2개사 독식 시민들 “의회사무국 철저한 감사 받아야”

목포시의회가 제9대 의회 전반기 18개월(2010년 7월~2012년 1월) 동안 회의록 등 각종 인쇄물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제 9대 의회 전반기 1년 6개월동안 모두 11건에 1억1867만원의 인쇄물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A사가 전체 발주액의 60%에 해당하는 6800만원의 물량을 수주하고, B사는 2400만원 어치를 납품해 사실상 2개 사가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주액이 1000만 원이 넘는 7건 가운데 5건을 A사에 몰아줘 특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유착 의혹 제기과 함께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회 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감사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골고루 나눠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부 편중된 점은 시인한다”면서 “사무국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용해야 할 공통 경비로 의원과 직원들의 설·추석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공청회나 세미나, 국제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9월 440만원의 골비세트를 구입해 추석 선물 명목으로 시의원 등 22명에게 전달했는가 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06만원을 들여 시의원과 직원 생일 축하 케이크를 구입해 전달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3711만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 지방자치 시민연대 김도형 사무처장은 “세비도 모자라 의정운영 공동운영비를 수년 동안 싹지뚝쳐서 사용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사무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전남농협 단감 연합수출사업단 올 50만달러 목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NH무역과 손을 잡고 단감을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전남 관내 5개 농협으로 설립된 전남농협 단감 연합수출사업단은 수출 2년차인 올해 수출목표

를 50만달러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전남농협은 최근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단감 연합수출 활성화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협 전남지역본부, NH무역, 전남 관내 단감 주산지농협

수출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수출자금 지원 및 지자체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등 5대 중점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전국 단감 생산량의 28%를 점유하는 전남 단감 판로확보를 위해 수출농가육성 및 포장재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단감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 남 영 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 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 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 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대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I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